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⑩

사막주변 초원지대 불모지 확산

자원수탈 탓…阿대륙은 최악의 생태환경

세계 각국의 사막화 피해 현상

◇무분별한 신림벌채와 과다한 방목으로 사막화하는 땅이 전세계적으로 늘고있다. 이는 생태계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된다.

토양의 사막화

부처님께서 알라비마을 악갈라바 탑묘에 계실 때 한 수행승이 탑묘에서 영사하면서 스스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파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난하길 "사문 석가의 아들이 스스로 땅을 파려하거나 남을 시켜 땅을 파려한다. 사문 석가의 아들이 유일한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모든 수행승들은 이러한 비난을 들었는데, 그 때에 한 욕심없는 수행승이 '왜 알라비마을의 수행승들이 스스로 땅을 파려 하고 남을 시켜 땅을 파려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안 부처님은 사실인가를 수행승들에게 물은 뒤에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왜 너희들은 스스로 땅을 파려하고 남을 시켜 땅을 파려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이여, 사람들은 땅속의 생명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 … 어떠한 수행승이라도 스스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땅을 파게하면 참회죄(按逸罪)에 해당한다"

율장에서는 땅을 생지(生地)와 불생지(不生地)로 구분한다. 생지는 토양의 흙을 말하고 불생지는 모래, 자갈, 바위가 많고 토양이 거의 없는 땅을 말한다. 생지라 할지라도 율장에 의하면 4개월이상 그 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불생지가 된다고 한다.

현재 지구의 불생지인 건조, 반건조지대는 육지가운데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매년 6백만 헥타르의 비율로 늘고 있다.

특히 사하라 사막은 년간 1백5십만 헥타르씩 남하하고 있다. 바로 이 사하라 지역의 사막화는 68년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토양의 사막화는 주로 사막의 주변에 존재하는 반건조지역에서 행해진다. 반건조지대는 관목이 드문드문자라는 초원지대이다. 이런 곳에 땅을 자주파는 과경작이나 풀을 너무뜯는 과방목이 행해지면 그곳의 미시적 토양생태계가 파괴되고 물의 보존능력을 상실시켜 바람에 의해 건조화되면서 사구의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관목이나 풀이 죽으면, 표토가 침식되어 사막화된다.

과거의 인류의 4대문명의 발상지도 대부분 이초에는 원시림에 가까운 비옥한 곳이었으나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거주하면서 인근의 숲을 베어내거나 화전화시켜, 땅을 파고 과경작이나 과방목을 행함으로서, 땅의 수분보존능력을 감퇴시켜 강수량의 감소, 지하수면의 하강, 기후변화등을 유발시키면서 사막화되었던 것이다. 한번 사막화되면 토양의 잔뿌리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기상조건이 달라지므로 완전히 불모지화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오늘날 진행되는 아프리카 토양의 사막화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탐욕스런 제1세계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아프리카인의 자급자족적 경제공동체를 파괴하고 유럽경제의 종속시킴으로 심화된 것이다. 아프리카는 제1세계의 필요한 커피등의 기호품을 위한 돈벌이되는 작물만을 재배 수출하면서,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한 나머지 건조지대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여 불모지화된 것이다.

제3세계의 아프리카 토착민들은 더이상 불모지화된 땅에서 기호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에 차질이 생기자 수입에 의존하게된 식량마저 조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아프리카는 사막화와 기아에 허덕이는 최악의 생태환경으로 전락한 것이다.

'95 신 행 캠 페 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금주의 주제

청소년 선도

교계 '자비의 전화'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희섭보살은 요즘들어 부쩍 청소년문제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 이유는 간단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들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다는데 충격을 받은 탓이다.

얼마전 ㅅ고에 다닌다는 한 남학생은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으면서 "건전하게 사귀는데도 부모가 자신을 불량학생으로 취급하면서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어 죽고 싶다"는 말로 상담을 신청해 왔다.

각 사찰 학생법회 지도법사들도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상담을 신청받고 있다. 특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며 "특히 불자들은 가정신행생활을 통해 자녀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청소년 문제의 발단은 우선 가정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고민을 해소시켜 줄만한 부모의 역할은 물론 마땅한 대화창구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부모·지도법사 적극 나서야

주입식 교육보다 마음의 대화 갖도록

또 ㅈ고의 한 여학생은 "눈만 뜨면 공부만 하라는 부모님 역성에 가출하고 싶다"며 어떻게 해야할지를 물어왔다.

청소년 상담문의는 전체상담의 20%지만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안고있는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천편일률적이고 억압적인 청소년 지도방법과 그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게 해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박희섭보살은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들부터 자녀 교육에 성문제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일삼던 어린 제자 '라훌라'를 더럽혀진 세수대야의 비유를 들어 차근차근 설명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알도록 일깨워 주셨다.

입시에 억눌리고 수많은 향락문화를 절제없이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을 도식적인 주입식 교육만으로 선도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각 가정과 사찰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들 청소년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귀를 기울여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전인교육에 앞장서야 할 때다.

신행수첩

진리 · 광명 찾는길

불교발전연 대구법회

이 시대는 올바른 가치관의 상실과 인간존재의 뿌리를 망각한 도덕성의 결여, 물질만능이 강조되는 정신세계의 황폐함등으로 인해 참된 자기 구현이 어려운 때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월탄)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대구 황제예식장에서 '21세기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전국순회 대구대법회를 연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찾는 길을 올바르게 알아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자기의 설 곳을 분명히 관찰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할 이번 법회는 시대를 앞서가는 한국불교의 앞날을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 법회는 제1부 월탄스님의 설법에 이어 제2부에 공옥진씨의 소리와 춤이 곁들여진다. (02)736-6202.

오대산서 심신을 맑게

광명선원 거사림 산행

버드나무 푸르르고 꽃이 붉은 자연의 본래 모습과 고찰의 정취가 어우러진 비로봉 산자락.

광명선원 거사림회에서는 오는 16일 06시 광명선원앞에서 오대산 적멸보궁으로 산행을 떠난다.

간단한 개인 준비물과 공양미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가는 산행은 법을 찾고 심신을 닦는 수행의 방편이다.

적멸보궁은 한국불교사원중에 제 1의 순례지이니, 자장율사가 맨먼저 이곳에다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봉안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새가 길을 인도하여 보궁자리를 일러주었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02)584-1108.

신심다지는 예불강좌

불교전통의식 강의

부처님 음성을 전하는 법구를 다루며 예불하여 부처님 앞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다면….

부처님의 자비 ·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대중을 위한 포교 · 실천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지선스님)은 오는 14일부터 6월30일까지 '제1회 불교 전통의식 강좌'를 개설, 염불 · 독경을 생활화하고 신행의 깊이를 더해준다.

또한 11일부터 6월27일까지 중생구제의 간절한 서원이 담겨진 지장보살본원경을 배우는 '지장경강좌'도 개설한다.

불교의식 강좌를 통해 하루 출가를 해 신심을 다지고 지장보살의 대서원을 배워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길을 찾아보자. (062)228-9098.

◇선덕여왕 12년(636)에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봉안한 오대산 적멸보궁.

선재들의 한마당 잔치

16일 동대부고서

으싸~으싸~.

푸른 잔디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아지랑이 아른아른, 만물이 소생하는 4월, 하고도 16일. 청교련 서울지부와 선재들을 위한 모임에서는 청소년들의 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와 일본제자로서의 자부심과 화합을 고양시키기 위해 「'95 선재들의 한마당 큰잔치」를 동대부고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기마전, 길거리농구, 제기차기, 레크게임, 육바라밀놀이 등의 전통놀이 및 현대 인기 운동경기 종목에 이르기까지가 한데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한다.

행사 접수기간 4월10일까지. (02)927-7766.

조상의 얼이 숨쉬는 곳

단석산 마애불 탐방

완연한 봄기운이 파릇한 새싹에 새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탄생의 계절 4월. 강이나 들로 유원지를 찾아 계절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우리조상의 얼이 숨쉬는 유적지를 찾아보는 것도 계절의 의미를 한껏 맛볼 수 있는 좋은 인연이리라.

부산지역 불교문화발전과 불교인의 의식 고양을 위해 부산불교교육원이 5일 우리문화기행을 떠난다.

이번 문화기행에서는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선도산 마애삼존불, 굴불사터 사면석불 등을 지도법사의 설명을 통해 둘러보며 마애불상군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산행의 묘미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느낌도 자유롭다. 그러나 우리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는 모두 함께 때닫는 선업의 마당이 될 것이다.

(051)466-4080.

배움의 열기 환영합니다

길음청소년학교생 모집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은 여기에 오십시오.

배움에 열의를 가지신 분은 여기에 오십시오.

생활에 쫓기고 형편이 어려워 미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이 길음근로청소년학교 학생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의 수강생을 4월10일까지 모집하는 길음근로청소년학교는 낮에는 일터에서, 밤엔 교실에서 마음의 텃밭을 일구고,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의 역군을 기다린다.

수업은 월요일, 토요일 오후 7시30분에서 10시20분까지 주 2회 전액무료로 운영되며,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985-0161~4.

신장이식 받을 분 기다립니다

생명공양실천본부 두 스님 장기 제공키로

마음의 소리를 따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연기법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엮어가는 삶은 참으로 빛나는 보주와도 같다.

적극적인 장기기증을 통한 육신보시로 색 · 수 · 상 · 행 · 식 오온이 다 공하고 육신이 나의 것이 아닌 이치를 깨달아 현상세계를 넘어 진리의 세계로 향하고자 참 수행자의 길을 걷는 두 스님이 불법과 생명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생명공양실천본부는 두 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신부전증, 만성사구체신염 등의 질환으로 고생하며 신장이식을 받고자 하는 수혜자를 기다린다.

전생의 큰 인연으로 살아있는 보살들을 만나며 광명의 새 삶을 찾기를 기원해 본다. (02)263-8268.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 · 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産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 · 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 · 현직 대통령, 기시 · 사토 · 미키 · 후쿠다 · 스즈키 · 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쁜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